

100만 명 프로젝트

| 성지 인터뷰 |

이번 '행복한 학습 캠프'에서 진행할 '에너지틱한 아이디어 실행'을 성지님은 어떻게 해왔는지 그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군복무 2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있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던 자신의 관심사를 심화하기 위해 '전세계 음악의 거장들과 함께 노래를 해본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함으로써, 군대 내에 피아노를 가져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거시 목표에 조연과 격려를 해줄 멘토를 찾아본 결과 '무엇이든 못할 것 없다'를 보여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 한비아 씨를 만나기로 했고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후 전세계의 거장들과 만나는 음악여행을 하기 전에 우선 국내에서 거리공연을 통한 무전여행을 해보아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며, 그 과정에서 KBS 다큐 '인간극장' 팀과 만나 소위 자신만의 100만 명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틱한 실행력과, 그 기반이 되어준 '힘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들어보십시오(편집자 주).

편집부: 맨 처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성지: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들은 20~21세 즈음 입대를 하는데 저는 그들보다 조금 늦은 23세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차피 갔다와야 하는 군 생활을,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간절하게 품었습니다. 귀한 삶이기 때문에 버릴 시간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 뜻으로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는 2년이 되려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얻고 경험하고 나가야할까?’ 이것을 저 자신에게 5주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가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제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군대 안에서도 음악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군악대를 지원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현역으로 들어가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치있는 군생활에 대한 내적 질문의 결론은 군대 안에서 음악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습이 제대 후에 어떤 길로 연결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연습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설레고 가슴 들뜨는 일이 되도록 말입니다. 제대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뭔가 설레지 않고 저에게 큰 동기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또래 친구들은 전역하면 현실의 눈높이에 맞춰 진로를 정했지만 그러면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재미있게 음악

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군대도 마치고 나면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떤 제약도 없다면 정말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고 가치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음악적 진로를 정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치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에너지를 120% 쏟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 음악을 통한 흥미로운 모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니 떠오른 것이 바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세계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음악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세계 유명한 음악의 고장에 가서 음악으로 거기에 있는 뮤지션들과 대결을 해보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들에게 한 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도 스스로 실험해 보자, 라는 설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라면 정말 흥미롭겠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노력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힘이 느껴지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행연습으로 국내에서 먼저 무전여행을 하면서 거리공연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 생기자 군 생활만으로는 받지 못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막 일어났어요.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 고생을 하면서 노력하여 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생기고,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니까 그 열정이 또 다른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것 자체가 소스가 되어 남들 잘 때 음악을 더 하게 되고 실천가능한 힘있는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환경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안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또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창고 안에 피아노를 들고 음악 작업실을 만들었으며,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음악 연습을 했습니다. 부대 사람들은 초반에 욕을 하고 많이 싫어했지만, 제가 매일 잠도 줄여가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니 나중에는 고참들이 인정을 해주더군요. 물론 군 생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편: 군대 생활이라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가서 세계 거장들과 음악 대결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았고, 2년이라는 억압된 환경을 재미있고 흥분되게 보낼 준비가 된 것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극장'을 출연하게 된 것인가요?

성: 음악의 거장을 만나는 세계여행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는 생겼지만, 그것은 아직 제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를 역산(逆算)해보았어요. 음악적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올해 6개월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며,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루에는 적어도 몇 시간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1년이 쌓였을 때에는 최소 몇 시간 정도 연습이 되어있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세계여행으로 향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먼저 국내에서 한

번의 리허설 같은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국내 무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또 단지 먹고 자고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단편적인 거리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100만명 정도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연결되는 상상을 하니깐 너무 신났습니다. 그것이 100만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다큐로 찍어 공중파에 띄워보내면 최소 100만명에게는 전달되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인간극장'이라는 다큐 프로그램과 접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 한비아 씨도 만났다고 했는데 그를 만난 것은 어떤 계기와 과정이었나요?

성: 이것은 제가 군 제대 바로 전에 실천했던 아이디어입니다. 군에서 이미 어려움을 넘어가는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제 삶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운동, 책읽기,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는 하루에 2시간, 운동 4시간, 그 후 책보기. 훈련할 때도 운동하고 근무 나가서도 놀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야간근무를 나가면 피곤해서 다음 날 오침을 하게 해줍니다. 12시까지 잘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자거나 보통은 자지 않고 아침 먹고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15Km를 매일 뛰었어요. 운동은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뛰면서 제대 이후에 거리공연 할 것, 음악 할 것, 저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뛰었는데 매일 매일 가슴이 벅차올라 올랐

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에머슨의 명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다감으로써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남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대답들이 안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감동이 지속되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더군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느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뇌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의욕이 엄청나게 나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0개씩, 턱걸이 100개씩, 달리기 15Km, 윗몸일으키기 1시간씩 했습니다. 그때 살면서 최대치의 에너지를 써보는 것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편: 다시 한비야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성: 한비야 씨는 병장 때,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세계여행을 해야 하니까 여행 책을 많이 봤어요. 그때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알게 된 분인데, 그의 책을 읽다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제가 100만 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1000만 명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질문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의 계획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고 하는데 당신도 미쳤다고 생각하나 하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병장 때 그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을 보는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틀을 넘어서 자기만의 어떤 지도를 만들고 자기만의 발걸음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끌렸던 부분은 그런 소신이었고, 책 내용이 많이 공감 됐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한

번 찾아가 봐야겠다, 알고 지내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연결되면 삶의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려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와 만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먼저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면서 기사를 보는데 3개월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NGO 대학원 과정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 3개월 이후면 2009년 8월인가 그랬는데 제가 9월에 전역이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미리 알아놔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 후는 늦고 지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 전에 한비아를 만나자’라는 그 생각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지금 병장인데, 휴가도 안 남은 상황에서, 비행기표도 구해야 되고,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어에 강한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만나서 친해져야겠다. 그래야 유학 다녀와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계획 없이 군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비아 씨를 아느냐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방법은 모르겠지만 당장 만나야 하는 상황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하나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넌 할 수 없어. 어떻게 가능해, 지금 말년 병장이라 휴가를 낼 수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가 만나줄지도 모르고...’ 등등.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친구들에게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는 말들을 들으면 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래? 듣고 싶었던 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통념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두 다 삶에 주눅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초반이고 군인인데, 군인정신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장군이 북

한까지 건너가라고 하면 갈 것이면서 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나. 내 삶의 주인은 난데, 왜 남이 시키는 것은 불가능해도 하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왜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깨트려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여러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날부터 바로 만날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일단 만남다는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설레는 목표, 에너지가 생기는 아이디어가 설정된 것입니다.

청춘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시대상황에 반항하다

편: 왜 그것이 설렘이지요? 못한다는 친구들의 생각을 깨뜨려서?

성: 통념을 깨뜨리는 통쾌한 느낌이 있고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기 제 주변 사람들의 너무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이고, 삶에 대한 아이디어도 식상하고, 뭐 할거니 물으면 복학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잘산다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제게는 그런 것에 대한 반항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반항이나 반발감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시대 상황 자체가 청춘의 가능성들을 억압하는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더 한 것 같아요. 다들 무얼 해보려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아무도 왜 안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정해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되는 거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누가 정했어?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질서들인데 이유 없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 같은 사람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제 주변에서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주변엔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책속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한비아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가서 해내는 모습에서 한비아 씨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설레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다

그때부터 한비아 씨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너무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뭐였는가 하면 관련 프로그램이 한 신문사에서 진행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멘토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멘토, 멘티, 명사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때 유명했던 분들이 엄홍길 대장, 한비아, 안철수 이런 분들이었어요. 지식인이거나 대가거나, 사회적 입지가 있는 사람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비아 씨가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 탑 100에 뽑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때마침 한비아 씨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명사와 함께 걷는 워킹 토킹’이란 것이었습니다. 한비아 씨와 북한산 서오릉 일대 오솔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명사의 삶에서 감명 받았던 사람들이 삶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방법도 금방 찾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시간만에 찾았어요. 이

관문만 뚫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찾아보지 않고 말하니까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죠. ‘역시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신청을 해야겠다.’ 신청하는 방법을 보니까 신청란에 이름, 자기소개, 성별, 거주지, 직업, 왜 한비아 씨와 만나고 싶은지를 써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워드 파일에 썼습니다.

그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당신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듯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 써서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청란에 주의사항을 못 본 거예요. 신청서를 200자 내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은 2000자가 넘었으니까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죠.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되면 PD 메일이나 연락처라도 찾아 직접 보내야겠다,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하면서 방법을 찾으니까 또다시 방법이 너무 쉽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공지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살펴보다 보니 ‘글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르니까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제가 왜 한비아 씨를 만나야 되는지를 공지사항으로 올려버렸지요. 공지사항이니까 주최 측에서 안볼 수가 없는 거죠. 참가자들도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클릭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기 담당자들도 봤겠지요. 그리고 언제 제 글이 사라지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리자가 보고 지울 때일 것이고, 그 관리자가 신청자를 뽑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 눈에 드는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 담당 PD 메일, 한비아 씨 메일도 찾아냈어요. 다 찾아서 한비아 씨, PD, 작가, 담당 기자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글이 지워지고 나서 이틀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 후 조선일보 담

당팀에 전화를 했지요. 그 프로그램은 방송과 연계되다 보니 방송에서 채택되는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청난에 지역과 직업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과 직업들을 골고루 섞어서 선정할 것이라고 추측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매우 유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군인인데다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연령대도 20대고, 여기서 명확한 의지만 보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지사항도 올렸고, 그 글도 이제 진행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들이 글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군인이고 이00입니다. 워킹토킹 프로그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 이00님,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다.’ 하더군요. 이 대답을 듣고 ‘이제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언제 하나요?’라고 물어보니,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서 공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지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정에서 떨어지더라도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소를 알면 제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미리 뽑아놓고 비행기도 예약해놓고 비용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제가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저를 떨어뜨리면 제가 비행기표도 다 취소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저라도 그 사실을 안다면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될

것이다'라고 했던 제 주변의 인물들에게 한방 먹여주기 위해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지요. 발표날인 월요일 아침에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는데 내용이 '이00 님, 워킹토크입니다. 이번에 한비야 씨와 함께하는 워킹토크에 선정되었습니다.' 였어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참부터 시작해 후임까지 다 데려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비야를 볼 수 있을 것으냐'고. 그러자 '아직도 그 이야기 하냐는 반응이더군요. 그래서 답변이 온 이메일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놀라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안 해보고 단념하냐, 나는 어차피 남이니까 상관없지만 너희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말이죠.

삶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서울에 가서 직접 한비야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저와 같은 동류의 인간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지요?' 라며 그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것을 공감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인 100만 명 대상의 다큐를 찍는 것과 1000만 명이 볼 수 있는 세계인 대상의 프로젝트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인간으로서 '이런 꿈이 있는데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조선일보 기자 중에 저에게 관심이 있던 한 기자가, '너무 보고 싶었고 궁금했다. 도대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이런 열렬한 동



기가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성사되기 전까지는 한비야 씨에게 한번 더 확인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안되면 될 때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실천하여 드디어 성사되어 비행기를 탔으니, 제 설레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자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디어였어요. 설레는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현실이 되니까 '아, 삶이 이런 것이구나, 삶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구나.'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것이 '무엇을 할지, 또는 어떤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과 정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목표든 다 할 수 있고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 현실적인가 아닌가보다 어디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비아 씨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채워졌어요. 아 이렇게 까지 내가 할 수 있구나. 더 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뭔가 해냈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100만 명 프로젝트 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에게만 물어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난 기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이상의 답을 들은 것 같다. 한비아 씨가 나에게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보다 더 큰 대답을 들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비아 씨를 만나 산책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 부대에 돌아가서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렸어요. 또 저보다 먼저 제대하고 서울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네가 군대에 있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다. 너도 곧 힘들어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비아 만났다고 하니 크게 놀라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니?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니 8개월 되었다고,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 나 제대하고 8개월 이후에 물어봐 줘라, 행복하냐고.’ 그리고 8개월 이후에 만나 물어보라고 했죠, 행복하냐고. 그리고 제가 답했습니다. ‘행복해, 최고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행복은 내가 만들어갈 각오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행복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그 뒤로도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편: 이제 100만 명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제 대하고 나서 바로 국내 무전여행을 시작한 것인가요?

성: 제대 후 10개월 동안 무전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거리공연을 시작했어요. 노원 젊음의 거리에서 첫 거리공연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만원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리공연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의정부로 가고 이후 강원도를 가려고 했어요. 왜 강원도를 가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8도 중에서 고령인구가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거리공연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편: 쉬운 길을 안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군요.

성: 그것이 도리어 편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이든 꼭 어려운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힘이 있을 때 먼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놓으면 쉬운 것만 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선을 갔는데, 평균 연령이 70대였어요. 저희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런 곳에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농민분들과 이야기 하다가 노래 부르니까 어르신들이 하룻밤 재워주고, 밥도 주셨어요. 그렇게 비용을 아끼며 며칠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무대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대를 만들다

편: 그 과정에서 인간극장을 출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인가요?

성: 저는 한 가지 활동을 하면 그것이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저 이전에는 무전 거리공연이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거나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스스로 이 도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계속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까?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의 눈에 들어서 인기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전여행을 컨셉으로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생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음악인으로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뭐지? 못 벌고 못 먹고 사는 거잖아. 음악으로 무전여행無錢旅行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음악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음악인으로서 굶어 죽는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무대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했어요. 예술가들은 항상 무대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대중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크게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무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대’에 대해 다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란 무엇인가?’ ‘청중’이 있고, ‘내 음악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나는 음악을 하고, 이 3가지 요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조명, 큰 스테이지가 있어야만 무대는 아니죠. 무대에 대한 개념을 최소화해서 만들어 보았어

요. 무대를 내 가방 안에 만들어 넣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무대를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내 무대를 펼쳐내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죠. 그런데 거리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제가 언제든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는 무대'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카페에서도, 길거리, 바닷가... 제가 소리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전부 무대가 되면서 기존의 무대라는 보편적인 기준이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본질이었던 생계 문제와 무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사라지니 이제는 정말 깊이를 담을 수 있는 음악을 하자, 진짜 음악, 내가 꽃 피울만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이 다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제 또래의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이 퍼포먼스를 그냥 한 번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용음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에게 '무대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우리가 음악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음악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도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메시지

를 전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더 커다란 기쁨이 오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방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삼십 대에게 모두 전하고 싶었어요.

가슴 뛰는 백만 명 프로젝트

편: 음악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계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군요?

성: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것은 뮤지션과 지금 이삼십 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백만 명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중파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를 통하면 적어도 백만 명 정도는 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뛰면서 신이 났어요. 단지 먹고 자고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단편적인 거리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정도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 전파하며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



시 연결되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음악을 통해 이런 큰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통해서는 영화 과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

면 천만 명 정도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실제 인간극장이라는 다큐에 출연하고 나서 정말 많은 메시지가 날아 왔어요. 격려 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살고 있고, 현실에 타협만 하고 ‘내 꿈을 쫓는 건 철없는 생각’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어요. 인간극장(2009년)을 보면 아시겠지만, 호화롭고 좋은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을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꿈을 꾀도 괜찮다는 용기를 받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여행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요.

편: 그 준비를 했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성: 저는 백만 명이 초점이었습니다. 백만 명한테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일까 보니 그것이 방송이었고, 방송 중에서도 공중파여야 했습니다. 공중파에서 제일 인지도 있고 우리 여행과 맞는 다큐를 찾다 보니 ‘인간극장’이 제일 조건에 최적화 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무전여행 시작과 동시에 출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일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막연하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간극장 팀과 접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제안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더 흥미를 보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강원도까지 1차 무전여행을 끝내놓고 저 나름대로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안서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편: 에피소드 한 가지만 들려주신다면?

성: 강릉이 상당히 재미있는 도시예요. 돈이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큰 야외무대가 있었어요. 재즈 페스티벌을 준비중이더군요. 우리가 이런 곳에 올라가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 거리공연을 위해 강릉에 있는 큰 호프집에 가서 사장님께 여기서 공연을 해도 되냐고 여쭙보았더니 흔쾌히 허락해주더군요. 그렇게 공연을 했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보니 40대 남성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는데 그들은 내일 재즈페스티벌 공연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이었어요. 음악을 잘 들었다며 내일 재즈페스티벌에 오프닝을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마음으로 깊이 찾으면 일은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기회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깊게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는 15분간 그 오프닝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인간극장 제작진에게 전했습니다. 인간



극장은 매번 제보를 받아 방송이 되는데, 방송국은 항상 소재가 필요하고 소재가 좋다면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소재라는 확신이 들

게 한다면 인간극장 PD를 설득하는 것은 쉽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인간극장 게시판에 저희 무전여행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PD가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PR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들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도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총 2차 여행을 했었는데 1차는 경기 북부에서 강원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무전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지면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더 도전할 때가 왔다는 신호라고 느껴졌어요. 그때는 쉽긴 했지만 도전 영역이 조금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거리공연을 하는데 비 올 때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많이 개척했어요. 평소 음악을 하는 공간이 아닌 곳으로 했죠. 예를 들어 카페나 각 지역의 명소 같은 곳으로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릉에서 동해를 다 돌고 나서 수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뭔가 낭만이 없어진 거예요. 한 번 공연하면 50명은 그냥 모였어요. 생활비로 쓸 돈도 쉽게 벌었어요. 이쯤에서 질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나? 무언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거기서 일단 1차는 끝났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군대를 갔고 2차를 하기 위해 다른 팀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팀으로 인간극장에 출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계획이 성사된 것입니다.

삶 속의 고마움을 배우다

편: 인간극장 팀과의 접촉은 어렵지 않았군요. 그러면 인간극장을 통해 무전여행을 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성: 거기서 딜레마가 왔습니다. 인간극장은 총 10일을 촬영했어요. 둘째 날까지 저희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촬영이 끝나자 PD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렀습니다. 이야기인 즉 저

희가 하는 일이 매번 똑같으니 방송에 나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치하이킹도 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제게 거리공연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마움이었어요. 그 모든 거리공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니 힘이 났던 것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 자체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0일 동안 촬영을 하면서 이 여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안정기로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이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자문해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 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 여행의 끝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도움을 받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이유 없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거리공연을 통해 받은 돈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달동네로 가서 어르신분들께 연탄을 나눠드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고 부산 가서 공연을 했죠.

편: 그러니까 다니면서 감사를 느꼈고,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방송피디에게 전했군요?

성: 네. 그래서 그것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상황에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독자노선을 걷고 있었는데, 자아성찰과 인생의 의미 등이 주제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광안리 해변을 걸으면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도 이유 없이 받았듯이 우리가 이유 없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다, 이것이 삶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부산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 가서 연탄 50장을 배달했는데 그분이 한



500만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은 비싸지 않거든요. 600원 정도 해요. 대략 3만원 어치죠. 아쉽지만 저희가 거리공연하면서 많이 모을 순 없었어요. 15만원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장 정도 샀었는데 연탄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할머니 입장이었으면 저처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가진 것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전여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청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좀 독하게 살았다면, 그때 배운 것은 감사하면서 독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 이 다큐 전체 과정에서 또 다른 내면의 성찰이 있었나요?

성: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소 3년을 기획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기획해서 실천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약간 큰 퍼즐의 조각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맞춰서 마지

막 조합까지 이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이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의 퍼즐의 조각이 훨씬 더 많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15% 맞춰서는 무슨 그림인 줄 모르고, 30% 맞춰도 부분적인 느낌인데, 60%를 넘어가니까 하나로 보이면서 전체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청년들의 관점으로 이야기 하면, 청년들은 퍼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뭘 하지 않았으니까 삶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의 불안함, 앞날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저에겐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한번 맞춰본 경험이 앞으로 얼마든지 삶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뭔가 근본적인 힘을 발견하고 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구나, 어려운 것은 없구나, 계속 해나가면 되는구나,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뺏속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저에게 불안함이라는 단어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만을 질문하게 되었죠.

※ 성지 님은 그 이후 '삶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더 깊이 추구하다가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100만 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청년 백일학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학습 캠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성지 | 미내사수련원 부원장, 깨어있기 강사, 통찰력게임 마스터

‘행복하게 배우는 법’을 배운다

Happy Learner

행복한 학습 캠프

- 공개강좌 : (무료) 2017년 6월 24일(토) 저녁 7시 30분 ~ 10시, 미내사클럽 서울강의장
- 캠프기간 : 2017년 8월 7일(월) ~ 8월 12일(토), 5박6일
- 등록기간 : 2017년 6월 1일 ~ 7월 10일 (선착순 6명,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용 : 70만원
- 참가대상 : 중학교1학년 ~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고 싶은 25세 이하 청년
- 캠프장소 : 미내사 함양수련원 (추후 변경 가능)
- 등록방법 : 미내사 서울 사무실에 신청 후 참가비용 입금시 확정
(02-747-2261, 농협 053-02-185431 이원규)
- 강 사 : 성지 선생(미내사 함양수련원 부원장) 포함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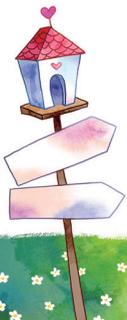
커리큘럼

- 1) 에너지 밸런스 (무의식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심기)
 - 느낌에 접속하기
 - 몸과 마음의 힘 기르기
 - 에너지 전환
 - 나와 의 대화
- 2) 진로찾기 (재미있게 진로 찾고 실천하기)
 - 왜 방향하고 있는가?
 - 길찾기
 - 상식을 뛰어넘는 책읽기
 -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
 - 길을 가다 만나는 문제들
- 3) 에너지틱한 아이디어 단계 진입하기
 - 마음속 바람을 발견하기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디자인하기
- 4) 행동하기
 - 모든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해보기

캠프의 효과

- 1)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알게 된다.
- 2)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잡을 수 있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된다.
- 3)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끼고 감각하는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된다.
- 4)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 5)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은 에너지’가, 실현에 대한 ‘어려움의 에너지’를 초과하게 된다.
- 6) 현재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는 행동을 해봄으로써 원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열게 된다.

Happy Learner



| 캠프 일정 |

시간	8월 7일(월)	8월 8일(화)	8월 9일(수)	8월 10일(목)	8월 11일(금)	8월 12일(토)					
am 07:00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am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am 09:00		자연에 맡겨기 느낌 발견하기	자연에 맡겨기 느낌 발견하기	자연에 맡겨기 느낌 발견하기	자연에 맡겨기 느낌 발견하기	후속프로그램 소개 및접수 (인터뷰)					
am 10:00											
am 11:00		전체 나눔	전체 나눔	전체 나눔	전체 나눔	전체 나눔					
pm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pm 01:30											
pm 01:31		입소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 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 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 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정리 및 퇴소				
pm 02:00											
pm 03:00							오리엔테이션				
pm 04:00											
pm 05:00											
pm 06: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바베큐	
pm 07:30											
pm 07:31	통찰력게임 직관을 통해 중심방향 찾기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에너지 밸런스 진로찾기 에너지텍 아이디어 프로그램	전체마무리 프로그램	
pm 08:00											
pm 09:00											
pm 10:00	프로그램 소개	나눔	나눔	나눔	파티&나눔						
pm 11: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am 12: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